월요광장

시공간의 인식 변화와 지역의 미래

이 승 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인류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19세기의 과학기술은 지식정보사회인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며 진화를 거듭하는 과학기술이 생산양식을 바꾸고, 생산양식의 변화가 사회구조를 변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기술만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에도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와 21세기의 변화는 다르다. 하나의 사례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교통여건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인류의 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4시간 걸리던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다면 편리함이지만, 80일 걸리는 거리를 하루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은 경이로움이다.

편지를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환경은 편리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21세기에도 인류는 전인미답의 세계를 향한 시공간의 인식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19세기의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쥘 베른(Jules Verne)으로 하여금 '80일간의 세계 여행'을 꿈꾸게 하였듯이,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상상의 세계를 '가능 세계'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근대의 변화들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었지만,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가장 인상적인 문화 충격의 하나였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인류는 확장된 시간과 공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결과, 19세기의 서구 문명이 제시한 장미 빛 미래가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였지만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준 것은 분명하다.

4월이면 KTX가 광주에 진입한다. 9월이면 10여년을 기다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개관한다. 7월에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웅을 겨루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린다.

2015년에 광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제주도나 중국까지 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지하터널이 필요하다고 할까? 덜그럭 거리는 차를 타고, 흙먼지 길을 걷던 시절을 그리워할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생각이 '한여름 밤의 꿈'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이 지역이 KTX의 개통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KTX의 광주 진입이 이 지역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서울까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 지역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중앙보다는 주변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지역도 있다. 파리에서 고속철도(TGV)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르망(Le Mans)은 고속철도를 도시발전의 축으로 생각하고 전략적 유치를 결정하였다. 르망 시는 다른 도시들과 다른 관점에서 고속철도를 활용하였고 도시발전에 성공하였다.

서구 사회에 벨 에포크(Belle epoque, 1880~1918)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으로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한 기간으로, 당시의 다양한 문화와 과학기술은 서구인의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절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서구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였지만, 문학, 미술, 음악,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는 서구인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지역에 다가올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KTX의 개통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역민의 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KTX를 접점으로 한 지역의 상생 프로그램은 필연적이다. 지역의 역사성을 고양시키고 미래 비전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지역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건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다. 입춘을 맞아 희망찬 미래를 향한 지역의 상생 프로그램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파산자에게 온 우편물

박 승 일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직원 표정이 묘하다. 방금 전 사무실로 파산자 우편물이 왔는데 소포처럼 두껍다면서 함께 열어보자고 한다. 개봉해 보니 유명 백화점에서 보내 온 롤렉스 카탈로그다. "워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고퀄'이네." 영롱한 빛이 나는 시계에 빠져들면서 인쇄한 곳을 살펴보니 머나먼 스위스에서 만들어져 비행기로 날라 온 홍보물이다. 카탈로그를 뒤적일수록 직원과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워진다.

우편물 주인이 정말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 맞나 싶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진행 중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데, 주요 우편물도 촉탁을 통해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 시계 기능이 들어온 이래로 시계를 차 본 적인 없는 필자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명품 카탈로그를 본 충격은 상당했다. 하지만, 한 때 잘나가던 사람도 결국 파산하는 걸 보면,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거나 노예로 삼았다. 그러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 바다를 통한 해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배가 들어오지 못해 파산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해외무역의 성격상 성공하면 큰 이득을 남기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데, 실패한 투자자를 범죄자 취급하면 누구도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파산관재인으로서 배운 점이 몇 가지 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을 진 이처럼 인생에 있어 한 때나마 잘 나갔던 사람보다 아예 처음부터 어려운 경제생활로 시작하여 시종일관 어렵게 생활한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파산자의 절반 이상은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이혼하는 등 가정생활이 평탄치 아니한 경우가 많다. 파산자들을 보면 건강이 나쁜 경우도 상당한데,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는 이들은 고령이거나 장애를 가져 일용 근로조차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파산채무자의 유형도 빈익빈 부익부이다. 몇 십억원씩 빚진 이도 있지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대의 채무자도 있다. 시골에서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80대 부부가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청한 경우에는 난감하다. 채무자의 자식들이 잘 살면 잘사는 대로 한숨이 나오고, 못 살면 못사는 대로 한숨이 난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시중에 넘쳐나는 회생이나 파산 광고를 보고 불성실한 신청대리 사무실을 이용했다가 제대로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

조사하다 보면 미운 채무자도 발견된다. 남의 돈으로만 사업해서인지 처음부터 빚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고, 재산을 숨긴 것이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면책 결정을 받기 힘들다.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러 파산을 신청했는지 애잔한 마음마저 든다.

평범한 독자들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화목하고 보증도 안 선다면 파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확 줄어들 터다. 롤렉스 카탈로그 채무자에게 며칠 뒤 명품 화장품 카탈로그가 배달됐다. 함께 배달 온 사채업자의 협박 아닌 우편물을 보고 부러운 마음은 쏙 들어갔다.

기 고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동시 개혁이 필요하다

오 병 기
전남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장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 1월30일 행정자치부에서 발 빠르게 이른바 지방재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대통령의 언급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메워주던 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늘리는 식'으로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을 바꾸고, 특별교부세는 사업대상을 검토하고 중복지원을 막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책당국이 과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재정제도를 운용해 오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분권적 재정운용방식을 혼용해 도입한지 20여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국가가 쥐고 있는 세입 측면의 강력한 권한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자율성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0 : 20이라는 소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들리는 소리다.

이러한 국가 대 지방 사이의 세입 불균형을 일부라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부세 제도이며,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서 재정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살림살이 궁핍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선심 써 나눠주는 돈이 아니다. 아직도 돈 되는 세원은 대부분 국가가 과세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재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국가가 '대신 과세'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합계가 90조원을 넘는다는 사실과, 전국 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모두 합해도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비교해 보아도,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은 거인과 유아만큼이나 큰 재정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와 지방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 제도인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까지 줄이는 수직적,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순계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30조원에 달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25조원만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경제력이나 인구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튼튼한 자치단체보다는 재정력이 취약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좀 더 배려하는 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수평적 재정력 격차도 줄여주는 기능을 지방교부세 제도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재원을 근시안적으로 손보기보다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국가가 도맡아야 할 사무는 무엇이고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어떤 것인가, 지역 간 격차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교부세 문제도 접근해 나가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전남도 적자 출연기관 구조조정 시급하다

전남도의 16개 출자·출연기관 대부분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보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 드러났다. 자체 수입이 적은데도 혈세만 쏟아붓고 있어 과감한 퇴출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보 분석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를 제외한 전남도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지난 2013년 당기순손실 규모가 214억 6400만 원에 달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순손실 규모가 120억90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테크노파크가 85억3100만 원으로 뒤를 잇는 등 적자투성이였다. 순이익을 봤다는 기관 2곳도 보조금과 출연금 덕분이었다.

문제는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에도 전남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으로 무려 344억 원을 지원받지만 결코 적자를 메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질적인 경영악화는 과학적인 경영진단이나 수익창출 여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방만하게 조직을 꾸려온 탓이다.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분야를 확장했다가 주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경우는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관광사업장 6곳 중 5곳이 지난해 3분기까지 374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골프장이 있는 여수 경도사업장은 2년 동안 233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근본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한 관광·레저분야에 지자체가 무리하게 손을 댔다는 점에서 예고된 경영난이다.

물론 특성상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계속 운영해야 할 기관도 있다. 공공기관의 지나친 이익추구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대책없는 혈세의 낭비는 죄악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곳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전남도의 경쟁력 확보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폭행당해도 말 못하는 참담한 알바생 현실

광주지역 아르바이트 경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고용주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명 이상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최저 임금을 받는 것도 모자라 구타까지 당하고 있다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광주시가 최근 3개월간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자 1003명(15~35세)을 대상으로 구직 및 부당한 대우 경험 등 근로환경을 파악한 결과 16.9%가 임금체불을, 고용주나 손님에 의한 폭행도 11.3%와 22.9%에 달했다. 이 가운데 27.3%는 최저 임금 이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대우에도 이들은 참는다(50.8%), 그만둔다(40.0%)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33.2%)하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25.5%) 등이 그 이유라고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에 뛰어든다.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구직을 하지 못해 알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알바 자리 찾기가 바늘구멍이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우월적 지위에 놓인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알바생들의 현실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체불과 폭언, 가혹행위, 심지어 성폭력까지 노동권과 인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광주시는 알바생들이 처한 비참한 실상을 파악한 만큼 관계 기관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갖추고, 상담할 수 있는 피해센터 확충도 필요하다. 알바를 하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 적극적 대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無 等 鼓

명당 발복

우리 조상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기운을 살펴 이승에서 사는 곳인 양택(陽宅)과 죽어서 묻힐 곳인 음택(陰宅)을 선택해왔다. 그래서인지 예부터 풍수지리가 발전해왔으며, 풍수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는 도선국사를 비롯해 수많은 지관 또는 풍수지리가들이 활동해 왔다.

지난 1990년대에는 '육관도사'라고 불리는 손석우(1928~1998)씨가 '터 : 육관도사의 풍수. 명당이야기'라는 책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들과 관련된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일화 등이 관심을 끌었는데, 단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지구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명당이라는 '자미원(紫微垣)'이었다. 육관은 자미원에 대해 '충청도 내포지방에 있다고 전해져 오는 명혈(名穴)인데, 한 세대 후 세계를 다스릴 제왕이 이 혈의 발복으로 등극한다'고 주장했다.

책이 1993년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제왕이 등극하기까진 10년 정도가 남은 셈이다. 이 책이 나오자 전국적으로 풍수 열풍이 불고 수많은 이들이 '자미원'이라는 명당을 찾으려 했으니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는 '명당 발복'이라는 암호가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0년간 통치한 압둘라 국왕이 지난달 23일 타계한 뒤 평민들과 나란히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우디 왕실은 당일 오후 간소한 장례식만 치른 뒤 수도 리야드의 공동묘지에 국왕의 시신을 안장했다. 시신은 관도 없이 흰 천만 한 장 둘렀고, 묘소 역시 흙바닥에 얕게 자갈만 깔아 무덤이라는 것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고(故) 압둘라 국왕은 자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18조4000억 원대에 이르는 갑부다. 그런 갑부 또는 권력자가 죽었다면, 우리나라였다면 왕릉까지는 안되더라도 거대한 봉분을 갖춘 호화찬란한 무덤이 넓지막한 부지에 들어섰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후손의 발복을 위해 무덤의 위치와 깊이, 시신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관이 정할 것임은 물론이다.

공동묘지에 묻힌 압둘라 국왕과 명당에 묻힌 우리나라 부자, 권력자의 후손 중 누가 더 빨리 그리고 오래 발복할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